嘉泉

아름다운 샘

NO. 189
2023년 9월호

'아름다운 샘'은 가천길재단 이길여 회장의 호(號)인 '가천(嘉泉)'의 순우리말입니다.

06 **특집**
AI기반 최첨단 CT·MRI 도입
병동영상검사센터 개소

07 **굿닥터**
만성골수성백혈병 Q&A
혈액내과 김혁 교수

08 **의학칼럼**
소아청소년 소발작에 대하여
소아청소년과 조교운 교수

09 **포커스**
국내최초 림프절 검체 수술 로봇 개발
외과 이원석 교수팀

AI 인공지능 기반 첨단 CT·MRI 장비 신규 도입
병동 내 검사센터 오픈으로 환자 안전관리, 검사 신속성 ⬆

가천대 길병원은 입원 중인 환자들의 검사 편의 증대와 정확한 진단을 위한 병동영상검사센터를 개소했습니다.
병동영상검사센터에는 AI 소프트웨어 기반의 최첨단 CT(컴퓨터단층촬영)와 최신의 3T MRI(자기공명영상) 장비 등 영상진단장비가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관련 내용 06면

9월 굿닥터

만성골수성백혈병이 불치병은 옛말! 표적항암제 복용으로 장기생존
굿닥터 혈액내과 김혁 교수

9월 22일은 백혈병 극복 의지와 희망을 북돋기 위한 '만성골수성백혈병의 날'입니다. 만성골수성백혈병은 골수 내에 비정상적인 세포가 과도하게 증식해 생기는 혈액암으로,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닌, 장기생존이 가능한 질환입니다.

관련 내용 07면

www.gilhospital.com 진료예약·문의 1577-2299
등록일 2008년 7월 29일 | **등록번호** 남동 라 00014 | **발행인** 이태훈 | **편집위원** 가천대 길병원 홍보실
디자인 (주)케이크커뮤니케이션즈

가천대 길병원
Gachon University Gil Medical Center

가천대 길병원,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의료지원 인천 방문 참가자 중 복막염 환자 긴급 이송 수술도

가천대 길병원은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차 방한해 인천에 머물렀던 **잼버리 참가자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의료지원**을 펼쳤다. 가천대 길병원은 인천시와 협력해 의사, 간호사, 국제의료센터 코디네이터, 응급구조사 등의 의료 인력과 앰뷸런스로 구성된 의료지원팀을 구성했다. 의료지원팀은 2팀으로 나뉘어 잼버리 참가자가 머문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와 골든튤립 인천공항호텔에서 8월 7일부터 11일까지 봉사활동을 펼쳤다. 의료지원팀은 무더위로 인해 발생하는 온열질환자 및 부상자들을 대상으로 진료 및 응급 처치 등을 시행하고,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경우 가천대 길병원으로 후송해 진료했다.이 과정에서 급성충수염으로 인한 복막염으로 수술이 시급한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 수술을 시행하기도 했다.

영국인 잼버리 참가자 A양은 봉사가 시작된 7일 오후 골든튤립호텔에 마련된 가천대 길병원 의료지원팀을 찾아와 복통을 호소했다. 복통의 양상으로 미뤄 복막염을 의심한 의료진은 현장에 대기 중이었던 가천대 길병원 앰뷸런스를 이용해 환자를 신속하게 가천대 길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다. 진단 결과 급성충수염에 의한 복막염으로 이미 염증이 복막 내에 광범위하게 진행된 상태였다.

의료진은 긴급 수술을 결정하고, 외과 김성민 교수의 집도로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복강경 수술을 시행했다. 다행히 골든타임을 넘기지 않고 신속하게 수술을 받은 환자는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다.

가천대 길병원 모범직원 41명 1,2차로 나뉘어 하와이 연수 (8/21~9/2)

이길여 회장 출발 전 직원들 격려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 상·하기도 항생제처방률과 주사제 등 우수

4가지 항목에서 1등급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위한 원내 의료진 실무협의체 회의, 협력 논의 (8/29)

공공의료본부 이정남 본부장 등 의료진 20명 참석

2023 아시아 럭비 세븐스 공식지정병원 인천 남동아시아드경기장에서 8.26~27 개최

10개국 240명 선수단 의료서비스 제공

가천대 길병원, 몽골 보건부로부터 감사장 몽골 우느르 블로러 의원 등 길병원 방문 (8/3)

몽골 심장병 어린이 201명 치료에 감사 의미

가천대 길병원-인천바로병원 협력병원 체결식 개최 (8/7)

환자 편의성 높이고 연속적 의료서비스 제공 약속

앰뷸런스에 산모 태워 집까지 바래다준 이길여 원장

48년 만에 그날의 감동 회상한 이상순씨 사연 화제

사연의 주인공 이상순씨

"50년이 흘렀지만 그 시절 이길여 원장님이 베풀어 준 배려를 잊은 적이 없어요."

1975년 인천 중구 이길여산부인과에서 셋째를 출산한 이상순(77세·경기도 광주)씨는 딸을 안고 홀로 퇴원하던 날을 잊을 수가 없다. 1남 1녀에 이어 셋째가 아들이기를 바랐던 가족들은 딸 출산 소식을 달가워하지 않았다고 한다. 서러운 마음이 복받친 이씨는 자신의 몸을 돌볼 겨를도 없이 출산 바로 다음날 퇴원을 결심했다.

그런 그를 다독이며 위로한 것이 이길여 원장이었다. 막무가내로 퇴원하겠다는 그가 혹여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걱정한 이 원장은, '돈 안 받을 테니 몸조리 더 하고 사흘 후에 퇴원하라'고 몇 번이고 만류했다. 그런데도 이씨가 고집을 꺾지 않자 **앰뷸런스를 불러 그가 편히 집까지 갈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씨는 "병원을 나서는데 이길여 원장님께서 앰뷸런스를 대기시켜놨더라"며 "송현동 친정까지 앰뷸런스를 타고 오는 내내 **이길여 원장님의 마음씀이 고마워 눈물**이 났다"고 회상했다. 이씨는 최근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반가운 영상을 발견했다. 2008년 방송된 'KBS아침마당'에 출연한 이길여 회장을 보게 된 것. 여전히 곱고, 강단 있는 이 회장의 모습을 보니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잊히지 않던 퇴원 날의 장면이 어제 일처럼 떠올랐다. 이씨의 사연은 그가 **해당 영상에 당시 상황과 감사의 마음을 댓글**로 남기면서 알려지게 됐다. 이씨는 영상 댓글을 통해 "이젠 총장님이신 원장님, 이렇게나마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존경합니다.(8월 2일)"라고 48년간 마음에 품어온 마음을 전했다. 이씨는 "당시 이길여산부인과는 인천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산부인과로, 1971년에 첫째를 낳으러 갔을 때 처음 본 이길여 원장님은 너무 예쁘고 고우셔서 깜짝 놀랄 정도였다"며 "얼굴만큼 마음도 고우셔서 셋째 낳고 받은 배려는 늘 잊지 않고 살았고 바쁘게 사는 중에도 길병원과 가천대가 날로 발전하는 모습을 볼 때면 내 일처럼 기쁘고 반가웠다"고 말했다.

이씨는 "살면서 언제나 힘을 주고 위로가 돼 주었던 마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회장님이 일구신 가천대 길병원, 가천대학교가 더욱 발전해 나가길 바라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가천 이길여 산부인과 기념관은 사연을 나눈 이상순 여사에게 도서 및 접시세트 등의 기념품을 증정했다. 기념관은 이와 같은 이길여 산부인과와 관련된 아름다운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다. 사연은 홈페이지(http://gachon1958.com) 및 전화(032-833-4167~8)로 접수할 수 있다.

간호본부, 다문화 가정 대상 의료봉사 실시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노동자 대상 (8/20)

인천의료사회봉사회 제80차 봉사활동 일환

가천메디컬라이온스클럽, 제1회 킹이찬무
탁구클럽 주최 탁구대회서 의료봉사

가천대 길병원 탁구동호회원들도 봉사 참여 (8/15)

여은하 진료협력팀 의뢰협력파트 계장
가천대 간호대학원 학위수여식서 총장상

여성암환자의 기능 상태와 삶의 질 연구

미디어 들여다보기

미디어 핫클립

감염내과 박윤선 교수

SBS <모닝와이드> (8/2)
물놀이 후 세균 감염 예방

응급의학과 임용수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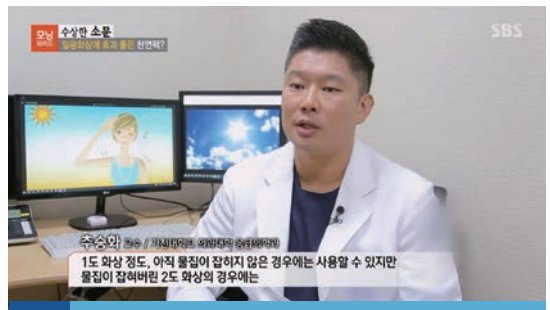
SBS <8시 뉴스> (8/12)
흉기 피해 시 응급대처

산부인과 이승호 교수

MBN <찾아라 특종 건강백서> (8/13)
갱년기를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

심장내과 신미승 교수

MBN <찾아라 특종 건강백서> (8/13)
중년건강 위협하는 복부 비만



응급의학과 추승화 교수

SBS <모닝와이드> (8/16)
물놀이 시 피부 화상 대처

내분비대사내과 김병준 교수

JTBC <지킬박사와 가이드> (8/20)
당뇨병은 습관이 만든다!

정신건강의학과 배승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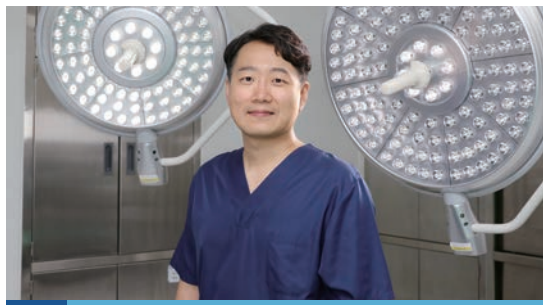
연합뉴스TV <뉴스> (8/21)
갈 곳 없는 조현병 청소년

가정의학과 김경곤 교수

MBN <명을 사수하는 사람들> (8/23)
현대인의 공공의적, 비만 합병증

정신건강의학과 강승걸 교수

TBN 경인교통방송 <지금 경인은> (8/23)
자살 예방의 날의 의미



성형외과 배우식 교수

TBN 경인교통방송 <닥터히어로> 매주 금요일
미세재건, 수부 외상 질환

재활의학과 이주강 교수

한국경제 <유명인의 건강법 모방 주의> (8/10)
카이로프랙틱(관절 통증 치료법) 주의사항

내분비대사내과 이시훈 교수

중앙일보 <탄산수 오해와 진실> (8/14)
탄산수는 골밀도를 떨어뜨릴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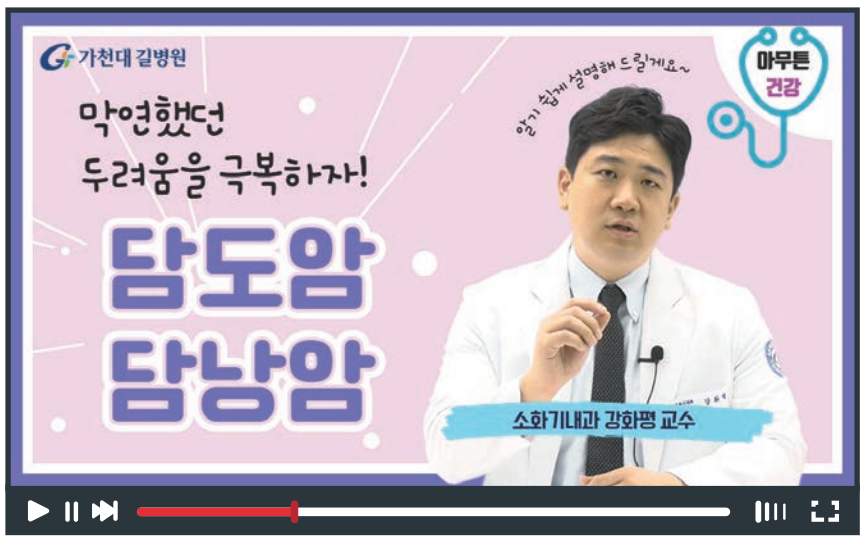
신경과 이영배 교수

중앙일보 <어지럼증의 경고> (8/21)
뇌 질환, 시기 놓치면 심각한 후유증

내분비대사내과 이대호 교수

경인일보 <혈중지질, 심뇌혈관질환의 씨앗> (8/29)
고지혈증 환자 치료와 관리

유튜브 [길병원TV] 핫클립



영상 바로보기

담도암, 담낭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저 멀리 던져버리세요!

담도암과 담낭암은 막연히 무서운 암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담도계 암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발병률 1, 2위를 다툴 정도로 국내에서는 빈발합니다. 다른 암에 비해 예후가 좋지 않지만, 최근에는 담도암, 담낭암 치료법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강화평 교수는 설명합니다. 담도암, 당남암의 원인부터 진단, 증상, 치료, 예방까지 강화평 교수가 설명합니다.

소화기내과 강화평 교수

- **진료분야 :** 췌장암, 담도·담낭암, 팽대부주위종양, 췌장·담도 양성질환, 내시경초음파/치료내시경
- **약력 :** 대한내과학회 평생회원 / 대한췌장담도학회 평생회원 대한소화기암학회 평생회원

영상 바로보기

고혈압을 관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혈압의 다양한 합병증

현대인의 만성질환 고혈압! 고혈압은 약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합병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심장내과 오병천 교수는 고혈압의 합병증으로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신부전 등이 발생한다고 설명 합니다.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식습관 관리와 운동 등으로 고혈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의 원인과 증상, 합병증,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장내과 오병천 교수

- **진료분야 :** 협심증, 심근경색, 대동맥질환, 말초혈관질환
- **약력 :** 대한내과학회 정회원 / 대한심장학회 정회원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정회원

더 많은 의학정보를 알고 싶다면? YouTube 길병원TV 를 검색하세요!

AI 인공지능 기반 최신 CT, MRI 등 검사 장비도입 첨단 장비 갖춘 병동영상검사센터 오픈

◆ 신속한 검사와 감염관리 최적화한 병동영상검사센터 ◆

△ 가천대 길병원 김우경 병원장(중앙)이 병동영상검사센터개소식에 참여한 모습

가천대 길병원은 응급의료센터 9층에 **병동영상검사센터를 개소**했다. 수술 등의 이유로 입원한 환자들 가운데 치료 전·후 CT나 MRI, X-ray 등 영상 검사가 필요한 경우 외래 환자들의 이용 동선과 시간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입원환자를 위한 병동영상검사센터에서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기존 검사실의 경우 낮 시간에는 외래 검사 예약 환자들과 함께 이용하다보니 신속한 검사와 검사실 이동 등에 있어 여러 제약이 따랐다. 병동영상검사센터는 본관 및 암센터, 인공지능병원, 여성전문센터 등 각 센터 병동의 중간인 응급의료센터 9층에 위치해 접근성도 편리하다. 환자들이 검사실 이동 과정에서 외부 감염원에 노출될 위험성도 줄었다.

◆ 최신형 3세대 듀얼 '소마톰 포스' CT 도입 ◆

병동영상검사센터에는 **최신 기능을 탑재한 첨단 CT와 MRI 장비가 도입**됐다. 이번에 도입한 지멘스 헬시니어스의 소마톰 포스(Somatom Force) CT는 빠른 검사와 최소 방사선 피폭, 정확한 영상진단이 가능한 첨단 장비다. 두 개의 X선과 두 개의 측정기를 동시에 이용하는 다중 튜브 방식이 적용돼 서로 다른 두 개의 데이터를 동시에 획득, 기존 CT 장비보다 선명하고 입체적인 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탑재로 검사의 정확도가 월등히 향상됐다. 특히 뇌, 심장, 복부 등 모든 영상의학분야에서 0.3mm의 미세한 병변까지 발견이 가능하다. 초당 74cm의 빠른 촬영 속도로 촬영이 가능해 검사를 할 때 호흡을 참기 어려웠던 환자들도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 저선량 X선과 소량의 조영제만으로도 정확한 영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비해 방사선 피폭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 최신형 3세대 듀얼 소마톰 포스 CT

◆ 정확도는 물론, 폐쇄 공포를 줄인 최첨단 MRI '마그네톰 스카이라' 도입 ◆

△ AI 소프트웨어 기반 첨단 MRI 마그네톰 스카이라

병동영상검사센터에 새로 도입한 지멘스사의 마그네톰 스카이라(MAGNETOM Skyra)는 임상에서 사용하는 MRI 가운데 **가장 높은 해상도를 자랑하는 3T MRI로, 뇌, 혈관, 척추, 근골격계, 복부 등 모든 신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검사가 가능**하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마그네톰 스카이라는 출입구가 70cm로 넓고 시스템 길이는 173cm로 짧아 MRI 검사시 환자가 느끼는 폐쇄감을 줄이고, 여성, 노인 등 체구가 작은 환자나 소아 등의 검사에서의 불안감도 줄였다.

반면 핵심 부품인 마그넷을 줄이는 혁신적인 기술로, 검사 시간은 짧아지고, 고해상도 영상 기술을 이용한 정확한 영상 판독은 가능해졌다. 가천대 길병원은 이번 장비 도입으로 총 6대의 최신 3T MRI와 6대의 첨단 CT 장비를 보유하게 됐다. 병동영상센터에는 조만간 최신 X-ray 장비도 도입될 예정이다.

가천대 길병원은 병동영상검사센터 구축을 기념하고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다짐하고자, 8일 오전 센터 입구에서 김우경 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병동영상검사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김우경 병원장은 "최선의 치료를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영상검사가 반드시 필요한만큼, 독립된 공간에 최첨단 장비들로 마련된 병동영상검사센터가 환자의 만족도를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혈액내과 김혁 교수

서서히 진행되는 만성골수성백혈병 노화가 가장 큰 원인, 완치율 90% 이상

9번, 22번 염색체의 이상으로 골수에 비정상적인 세포가 과도하게 증식하는 혈액암인 만성골수성백혈병. 20~30년 전만해도 장기 생존율이 30~40%에 불과한 난치병이었으나, 발병 기전이 밝혀지고 표적치료제의 성과로 90% 이상이 완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9월 22일 만성골수성백혈병의 날을 맞아 혈액내과 김혁 교수를 만났습니다.

Q1 만성골수성백혈병은 암인가요?

만성골수성백혈병은 혈액암 중 하나입니다. 뼈 안 골수에서 백혈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긴 악성 혈액질환으로, 특정 염색체의 이상이 백혈구를 비정상적으로 과다하게 증식시킵니다. 암인데도 불구하고 '백혈병'이 진단명인 이유는 신체 조직이 비정상적 과잉성장을 하는 '암'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기 이전에, 백혈병 증상에 대한 발견이 먼저 시작되다보니 오랫동안 사용한 명칭을 변경하기 어려워서 아직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Q2 만성골수성백혈병도 증상이 있나요?

만성골수성백혈병은 보통 건강검진을 위한 혈액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혈구의 수치가 서서히 증가하는데,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고 만성기에서 피로, 체중감소, 식욕부진, 복부팽만, 조기포만감, 발한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환자는 비장이 커져서 병원을 찾게 되기도 합니다.

Q3 급성골수성백혈병과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만성골수성백혈병은 9번 염색체와 22번 염색체 유전자 일부가 잘리고, 위치가 바뀌면서 생기는데, 성숙한 백혈구 형태의 종양 세포가 증식합니다. 병의 진행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치료를 잘 받으면 90% 이상 생존할 수 있지만, 치료하지 않으면 급성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급성백혈병은 미성숙한 백혈구가 종양 세포의 형태로 증식하는데, 진행 속도가 빠르고, 치료도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Q4 만성골수성백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있나요?

만성골수성백혈병의 가장 큰 원인은 노화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생겼다가 사라지고, 같은 세포를 복제하는 과정을 생존기간 내내 반복합니다. 쉽게 말해 작은 티끌(돌연변이)일지라도 복제되는 횟수와 기간이 늘어나면서 조금씩 문제가 커질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만성골수성백혈병은 9번, 22번 염색체 일부가 자리를 바꿔 나타나지만, 그 원인은 일부 원자력 사고 등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것 말고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고 이 유전자 이상은 유전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력에는 상관이 없다고 봐도 됩니다.

Q5 치료가 어렵다는 인식이 퍼져있는데, 치료 성과는 어떤가요?

만성골수성백혈병의 원인이 되는 9번, 22번 염색체의 이상에 의한 이상 유전자의 작용이 되지 않도록 하는 1~4세대 표적치료제가 2000년대 이후 보편적인 치료방법으로 발전, 사용되면서 만성백혈병 환자들의 평균수명은 정상인들의 평균 수명과도 같아졌습니다. 다시 말해, 만성백혈병 환자들은 거의 대부분 백혈병으로 사망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가속기나 급성기에 진단을 받는 경우는 치료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표적항암제의 발전으로 치료 성과가 향상되었으나 약을 장기 복용해야 하고, 여러 부작용을 겪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연령 등 상황을 고려해 약 복용 기간을 줄이고 이에 따른 부작용이나 환자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노력들을 의료진들과 학계가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혈액내과 김혁 교수

▶ **진료분야** : 혈액암(급성골수백혈병, 만성골수백혈병,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재생불량빈혈

▶ **약력** : 현 대한혈액학회 만성골수성백혈병연구회 위원장
M. D. Anderson Cancer Center 교환교수

자꾸 멍한 우리 아이? 경련일 수 있습니다

9월입니다. 무더운 여름도 어느덧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방학을 지낸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서 새로운 친구들과 반에 적응하며 아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을 텐데요. 최근 아이가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멍하다'라는 증상으로 소아청소년과 외래를 방문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바로 소발작(결신 발작)의 경련 모습입니다.

불러도 반응없이 멍한 모습, 소발작 증상일 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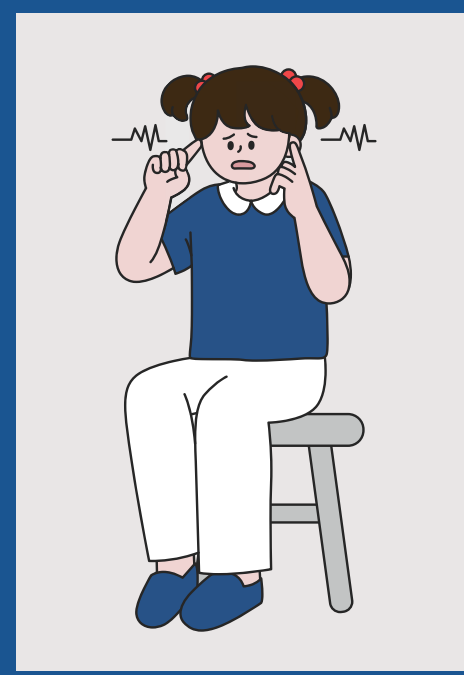
아이들이 평소처럼 행동하다가도 갑자기 불러도 반응이 없고 **멍하니 바라보는 모습이 소발작의 주요 증상**입니다. 그 외에도 고개를 떨구거나 입을 오물거리고 침을 흘리기도 합니다. 스스로 자신이 발작을 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못하기 때문에 발작이 끝나면 아이는 발작 직전에 하던 행동이나 상황을 이어서 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일반적으로 대개 10초 이내 짧은 시간 동안 나타나기 때문에 단순 집중력 저하로 오인되어 증상이 심해지고 나서야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가 늦어지기도 합니다. 소아기 소발작은 대개 5세에서 10세 사이에 발생하며, 이 시기에는 치료에 반응이 좋습니다. 증상이 비교적 적어서 소발작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뇌파의 이상은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전신 발작의 한 형태입니다. 뇌파의 이상이 있는 동안 뇌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여 잠시 동안 의식소실이 나타나고 본인은 이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소발작은 다른 형태의 발작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장기간 치료가 필요합니다.

질병 자체 낯설고, 무겁게 느끼는 환자, 보호자 많아

'발작', '경련', '뇌전증' 등 질환에 대해서 외래에서 진료를 하다보면 많은 질병 자체를 낯설고 무섭게 느끼시는 환자, 보호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발작은 뇌의 비정상적인 전기 방출에 의해 발생하는 **돌발적이고 일시적인 기능 이상 현상**입니다. 발작은 흔히 생각하는 전신 근육에 힘이 들어가고 떠는 증상인 운동 발작의 한 가지 형태가 아닙니다. 반대로 근육의 힘이나 긴장도가 떨어지며 쓰러지는 증상 또한 무긴장 발작이라는 운동 발작 증상이고 그 외 신체의 이상 감각이나 감정 변화 또한 경련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작이 두 번 이상 특별한 유발요인 없이 재발할 때 '뇌전증'이라고 정의합니다. 발작 혹은 경련이 한 종류가 아니듯이 뇌전증도 경련의 형태나 뇌파 결과에 따라 분류하며 여러 종류의 뇌전증이 있고, 이에 따른 치료가 달라집니다. 적절한 치료가 아니라면 오히려 경련이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항경련제 복용으로 조절, 관리할 수 있어...치료시기 놓치면 안돼

뇌전증을 조절하는 방법 중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것은 **항경련제의 복용**입니다. 뇌전증은 잘 치료하면 경련이 조절되고 2년 이상 발작이 없으면 약의 중단을 고려해볼 수 있는, 즉 **완치가 가능한 병**입니다. 뇌전증은 항경련제를 복용하면 경련의 빈도를 낮추고 강도를 약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뇌전증은 관리가 필요하지만 적절한 치료로 완치를 기대해볼 수 있는 병입니다. 과도한 공포로 인하여 오히려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늦게야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새로 진단되는 뇌전증의 절반이 소아 연령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아이의 경련 원인에 대한 정밀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많은 수의 소아 뇌전증이 자라면서 회복되는 비교적 좋은 예후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의 증상이 이러한 소발작으로 의심되는 증상과 일치한다면 소아청소년과 뇌전증 전문의와 면담하여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필요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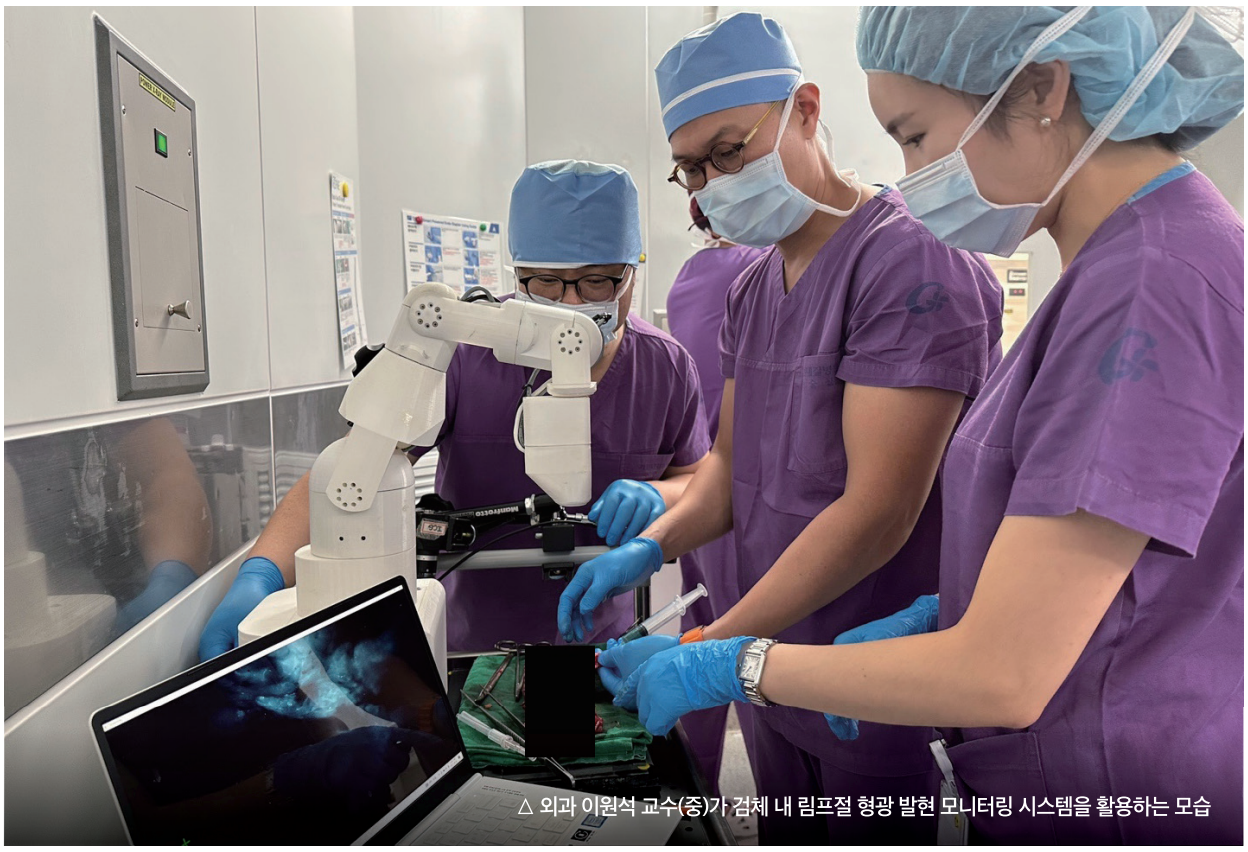
소아청소년과 조교운 교수

▶ **진료분야**
소아신경, 뇌전증(경련), 두통, 실신,
희귀유전질환, 수면질환

▶ **약력**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정회원
대한소아신경학회 정회원
대한뇌전증학회 정회원
대한의학유전학회 정회원

외과 이원석 교수·가천의료기기융합센터 김광기 교수팀, 국내 최초 소화기암 림프절 관찰 수술 로봇 개발

육안으로 구별 어려운 미세 림프절 찾고 분리
전이암 주요 인자인 림프절 실시한 판결, 미세 림프절도 효과적으로 발견



△ 외과 이원석 교수(중)가 검체 내 림프절 형광 발현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는 모습

이원석 교수

김광기 교수

가천대 길병원 외과 이원석 교수와 가천의료기기융합센터 김광기 교수팀이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미세한 림프절(LN, lymph node)을 찾고 분리하기 위한 수술 로봇을 개발**했다. 암 환자에서 전이암의 주요 인자인 림프절의 절제 등에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교수팀이 개발한 '형광 조영유도 하 림프절 관찰용 수술 로봇'은 소화기 암의 외과적 절제를 통해 채취한 검체에서 림프절을 실시간으로 판별하고, 미세한 림프절도 효과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림프절'은 암 진단과 치료 시 종양세포만큼 중요하다. 암의 병기를 결정하기 위한 TNM 분류(국제 임상병기분류법)의 조직학적 검사에서 림프절 수는 중요한 요인이다. TNM 분류는 암의 치료, 예후 판정에 있어 중요한 지표이다. 이때 검사된 림프절 수가 적으면 림프절 전이여부의 발견이 누락돼 병기가 낮아지는 '다운스테이징'이 발생한다. 따라서 TNM 분류 시 최소 12개의 림프절 검사를 권고한다.

하지만 림프절은 그 크기가 다양하여 육안적 구분이 쉽지 않고, 환자의 지방 분포도에 따라 찾기가 어렵다. 현재 림프절 채취는 '수기 촉진법'이 많이 쓰이며, 이는 집도의나 임상병리사가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며 촉진하는 방법으로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아 국가마다 방법이 상이하다. 이 방법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검사자의 숙련도에 따라 차이가 있어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외과 이원석 교수는 "기존의 림프절 수기 촉진법과 수술 현미경의 단점을 보완하여, 시간이 덜 소요되고 의료진의 숙련도에 의존하지 않는 효율적이고 보편적인 림프절 채취 방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소화기 암의 림프절의 실시간 구분 관찰이 가능한 형광 조영 유도 하 현미경 로봇을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교수팀이 제작한 림프절 관찰용 수술 로봇은 수술 중 채취한 검체의 혈관 내 형광 조영제 주입을 통해 수술실에서 림프절을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이 모든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녹화해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또한 외부 모니터링 시 영상 확대 및 축소를 통해 검체 전체와 접사 촬영이 가능해 보다 섬세한 작업이 용이하고, 형광물질을 이용하여 미세한 림프절도 효과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원발 종양을 기준으로 림프절 측정거리의 표준화 ▲고품질의 림프절 세포를 채취해 다중오믹스 분석을 위한 검체로 활용 기대 등의 효과도 이 시스템의 장점이다.

국내 최초로 개발된 이번 기술은 향후 의료진의 진료 서비스 질 향상은 물론 국내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이원석 교수는 "이번 시스템은 국산 기술인만큼 값비싼 외국 기술을 대체함은 물론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이루고, 우수성을 알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며 "향후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면 성능과 가격 모두 세계적 경쟁력을 갖춰,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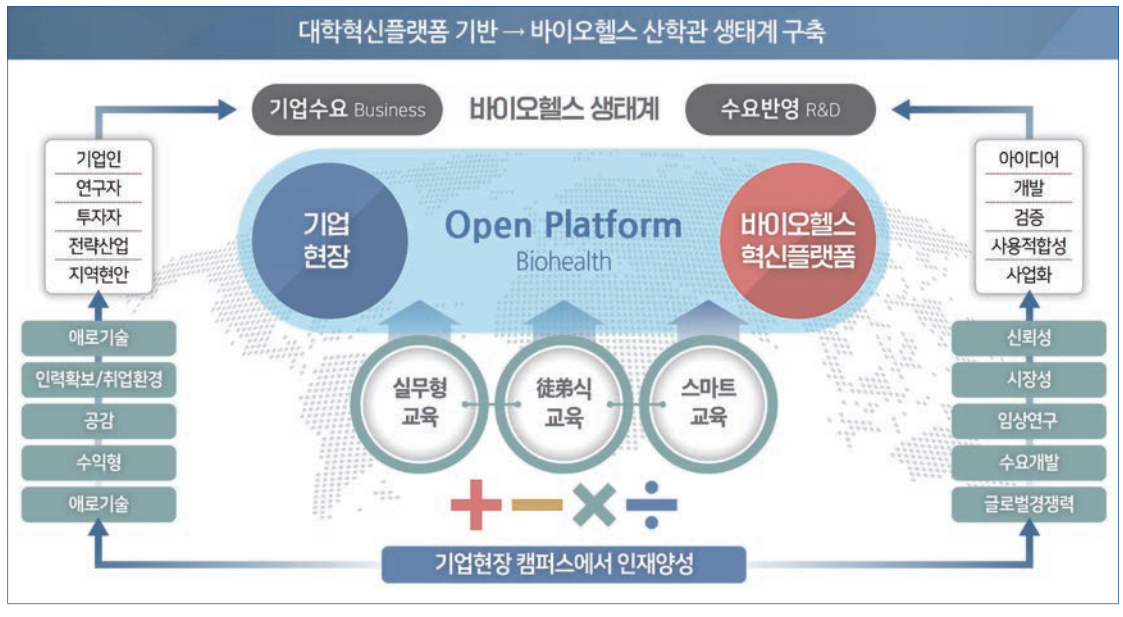
연구중심병원 과제의 일환으로 이번 연구를 시작한 이원석, 김광기 교수팀은 지난 3월 가천대 길병원과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도움으로 '검체 내 림프절 형광 발현 모니터링 시스템'의 특허를 출원하고, 기술 이전했다.

가천대, 경기도 '대학혁신플랫폼 사업' 선정

2029년까지 100억원 투입해 바이오헬스-빅데이터·ICT·AI 분야 융복합 인재양성, 기술협력을 위한 혁신생태계 구축

가천대학교(총장 이길여) 김영주 교수팀이 성남시의 지원을 받아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대학혁신플랫폼 사업(GUIP)'에 8월 7일 선정**됐다.

이 사업은 도내 기업 및 도민이 필요로 하는 지역현안 해결, 실무형 인재양성, 현장 맞춤형 기술협력 등 대학을 중심으로 산학연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대학의 사회공헌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23년 8월부터 6년간 약 100억원을 투입한다. 가천대가 주관한 '바이오헬스 빅데이터·정보통신기술(ICT)·인공지능(AI) 융·복합분야 혁신플랫폼'은 서면심사, 발표평가, 현장점검, 심의를 거쳐 유일하게 선정됐다.



가천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도 전략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헬스분야에서 지역과 현장 기반의 인재양성 및 기술협력 체계를 구축해 바이오헬스 융합 교육과정 개발, 지역산업체 취업 연계, 플랫폼 인프라를 활용한 현장중심 기술협력 활동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 사업에서는 바이오헬스에 대한 보건의료 현장의 아이디어를 수집하여 기술개발이 가능한 기업과의 실증을 통해 사업화를 창출할 수 있는 오픈플랫폼 중심 개방형 인력양성·기술협력 체계를 확립하고, 제품 개발 시 바이오헬스 산업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단계별로 제공하기 위한 주문형 입체 교육 및 혁신기관이 협력하여 인프라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가천대를 주관 대학으로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상공회의소 등이 협력 지원한다.

가천대학교 8월 대학교 브랜드평판 5위, 역대 최고 순위

지난달 10위에서 5단계 상승, 대학 브랜드 파워 입증

가천대학교가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8월 대학교 **브랜드평판에서 역대 최고 순위인 5위를 기록**했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7월 9일부터 8월 9일까지의 대학교 브랜드 평판 빅데이터 1억 7,745만 1,729개를 분석한 결과이다. 8월 브랜드평판에서 1위는 서울대, 2위는 고려대, 3위는 연세대, 4위는 성균관대가 이름을 올렸다. 가천대는 참여지수 1,122,071, 미디어지수 650,576, 소통지수 981,727, 커뮤니티지수 912,122를 기록해 브랜드평판지수 3,666,496를 기록했다. 지난 7월 브랜드평판지수 2,919,267과 비교해보면 25.60% 상승해 지난달 10위에서 5위로 순위를 끌어올렸다. 대학교 브랜드 브랜드평판지수는 소비자들의 디지털 행태를 평판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로 분석했다. 한국브랜드모니터 소비자위원이 진행한 채널평가도 포함했다.

가천대학교, 후기 학위수여식 개최

박사 76명, 석사 360명, 학사 1,073명 등 총 1,509명 배출

이길여 총장 "뜻을 높이 세우고 굳세게 전진하라" 당부

가천대학교가 8월 24일 대학 예음홀에서 **2022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학위수여 인원은 박사 76명, 석사 360명, 학사 1,073명 등 1,509명이다. 학위수여식에는 이길여 총장을 비롯해 최미리 수석부총장 등 교무위원, 송성근 가천대 총동문회장과 학부모, 졸업생 등 3천여명이 참석했다. 전기공학과 강수빈(여·21)씨와 글로벌경영학전공 이윤수(26)씨가 총장상을 받았다. 이길여 총장은 '뜻을 높이 세우고 굳세게 전진하자'라는 축사에서 "졸업생 여러분은 미지의 신대륙을 찾아 용기와 포부로 대양 횡단에 나선 콜럼버스의 산타마리아호 선원들처럼, 거센 풍파와 싸우면서 항로를 개척해 나가야한다"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 인생에 불가능은 없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돌부리에 넘어져서 좌절하고 절망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실패와 역풍을 동력으로 삼아 바람개비 정신으로 우뚝 서야 한다"고 말했다.

고객의 소리

재활의학과 박기덕 교수

이제 약 한달 후면 암치료 5년째입니다. 독한 항암치료 후 온몸의 통증과 부종으로 많이 힘들 때 박기덕 교수님께 치료를 받았습니다. 매일 병원을 방문해 물리치료와 부종치료를 받으면서 몸과 마음을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어렵고 불편하지 않게, 편안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남은 치료도 열심히 받겠습니다.

윤OO님

척추센터 백종민 교수

저는 교통사고로 지난 7월 3일부터 2주간 동안 입원해 있다가 현재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환자입니다. 백종민 교수님은 환자와 정서적 교감이 느껴지도록 응대해 주시는 모습에서 진심으로 환자를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으며 외래 진료에서도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모습에 감동 받았습니다.

오OO님

비뇨의학과 김광택 교수

멋진 김광택 교수팀, 회진할 때 친절하게 수술 결과와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소상히 알려주셔서 감사했습니다. TV에 출연하신 모습 보다 더 친절하셨고, 길병원의 간호간병서비스도 직접 겪어보니 더욱 최고였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진들이 무더위에 지치지 않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유OO님

간호본부 박가영 병동간호사

응급센터 병동에 근무하는 박가영 간호사를 칭찬합니다. 환자가 이것저것 무리하게 요구하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두서 없이 얘기를 해도 끝까지 경청해주고, 정서적으로 교감하면서 환자를 간호하는 모습을 보고 전문성이 느껴졌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오OO님

간호본부 황유정 병동간호사

언제나 웃음으로 환자를 대해주신 암센터 7층에 근무하는 황유정 간호사님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딸 같기도 한 간호사가 힘든 업무에 지치면 짜증날 법도한데, 환자들에게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고 상냥하게 대해주니 아픈 것도 훨씬 빨리 좋아지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칭찬하고 싶습니다.

정OO님

간호본부 이은지 병동간호사

이은지 간호사님은 환자들의 반복된 질문에도 귀찮거나 싫은 기색이 전혀 없이 친절하게 응대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입원해 있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간호사님의 모습은 가장 친절하고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덕분에 편안하게 잘 치료받고 퇴원합니다. 늘 건강하게요.

배OO님

고객의 칭찬

진료부 I **신경과** 구본국(전공의) **가정의학과** 고기동 **방사선종양학과** 이석호 **비뇨의학과** 김광택 **성형외과** 손희준 **이비인후과** 이상아 **재활의학과** 나하은, 박기덕 **정형외과** 김진솔(전공의), 김한솔, 임동섭 **종양내과** 안희경 **척추센**터 백종민

간호본부 I **A108W** 고혜원, 김학현, 양창우 **A158W** 이유진 **A168W** 강지원, 상월규, 정정현 **C10AW** C10A병동 **C10BW** 송상익 **C7AW** C7A병동 **C7BW** 김도현 **C9AW** 노지연 **I116W** 송민지 **I146W** I146병동 **R10W** 민소윤 **A128W** 김연주, 양주현 **A158W** 구가영, 김소연, 박소현, 정진아 **A168W** 김경아, 김은선, 류다연, 민다윤, 박지혜 **A78W** 김민선, 김재은, 황유정 **A98W** A98병동, 김승연, 박혜정, 조용설 **C10AW** C10A병동, 백승린, 유세린 **C10BW** C10B병동, 엄새영 **C5AW** C5A병동 **C6AW** C6A병동, 정지혜 **C7AW** C7A병동 **C7BW** 최고은 **C9AW** C9A병동, 김유라, 양동혁 **I106W** 정민경 **I116W** I116병동, 김유리, 박귀주, 송민지 **I146W** 마조은, 박관희 **I156W** 한보경 **I166W** 최영선(NA) **I96W** 강혜원, 김서연, 김이슬, 박세진, 백서윤, 서회숙 **M6W** 정혜선 **MDR** 김지원 **분만실** 성하나, 이현화, 정가희, 정진숙(NA), 한은정 **MICU** 신생아집중치료실 **MICU1** 강지은, 김정은, 내과계집중치료실1, 서희경 **MICU2** 내과계집중치료실2, 박희진, 이예은 **NSICU** 공예림, 김소원 **R10W** 민소윤, 박진희, 오완택, 유연진, 윤가은 **R7W** 김다혜, 박인규, 신유라, 안수빈 **R9W** 김민정, 김소라, 나지웅, 이상록, R9층병동, 박가영 **SICU** 외과계집중치료실 **국민검진센터** 김수정 **마취과** 공미진, 김정훈, 선은선, 이경란, 이혜지 **방사선종양학과 외래** 설예진, 우시현 **비뇨의학과외래** 최상기 **소화기내시경실** 소화기내시경실 **소화기내과외래** 문연화, 박예린 **의무기록팀** 홍소영 **이비인후과외래** 서옥자 **인공신장실** 강민지, 홍슬기 **종양내과외래** 김건희, 김지영, 김혜영

진료지원부 I **VIP신환상담팀** 김지혜(VIP/신환상담팀) **물리치료팀** 물리치료팀, 신한미르 **영상의학팀** 김태희, 박재영

행정부 I **원무팀** 홍수은 **재난방재팀** 김은기, 변지형, 오정철, 박경미

병원 이용이 더욱 빠르고 편리해집니다!

가천대 길병원 모바일 앱

휴대전화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앱 설치 페이지로 안내해드립니다.

기부는 사랑입니다

최OO(66세)님은 청각장애인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형제자매도 없어 홀로 생활해 왔습니다. 선천적인 청각장애가 있던 그는 수화통역센터의 도움을 받아 병원 진료 등 외부 활동을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허리 통증이 심해져 일상생활을 유지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인근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지만, 고통을 견디다 넘어지면서 급기야 응급실에 실려오게 됐습니다.

검사와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말에, 그는 치료를 거부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수급비를 받아 하루하루 살아가던 환자에게 100만 원에 가까운 검사비는 너무 큰 산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참을 수 없는 통증은 계속되었고, 수화통역센터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환자는 다시 외래를 방문하였습니다. 환자의 사연을 접한 사회사업팀에서는 환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환자가 거주하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환자의 어려움을 알리고 국가 지원 및 본원 사회사업 기금으로 환자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추후 수술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의료비 자원 연결을 통해 환자가 안정적으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작은 실천이 큰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후원계좌번호 100-014-147300(신한은행, 예금주: 길의료재단)
※기부금영수증 발급 필요 시 사회사업팀(032-460-3531)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가천대 길병원

수검자 **1대1 맞춤형** 건강검진 설계

가천대 길병원 VIP건강증진센터

호텔 같은 **쾌적함**은 기본!
수검자 동선과 검사 시간 단축을 위한 전문코디네이터의 동행서비스
국내 최고의 대학병원 진단/진료 시스템을 그대로!

- ✓ 알찬 구성의 기본검진 패키지
- ✓ 호흡기/심장/소화기/정밀/여성/남성 특화 프리미엄패기지
- ✓ 뇌졸중, 파킨슨, 치매 조기발견 위한 뇌건강패키지

위치 | 암센터 13층 VIP건강증진센터 **예약** | 1577-2299(2번->1번)